

**사랑 이야기**

켄 트레이시 목사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장로교를 통해 갈등 해소와 교인 활성화를 하는 일을 도왔다—이는 사랑에 근거한 사역이었다.

만약 당신이 트레이시 목사와 단 몇 분만이라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그가 왜 어려운 대화에 대처하고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돕는 데 정말 능숙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그는 쉽게 웃고 당신을 빠르게 끌어들이는 호감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교회 안에서 사역과 봉사에 중점을 두고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쌓았다. 그의 아내 캐롤은 지금까지 늘 그의 곁에 있어 왔다.

그의 첫 사역은 펜실베니아 주 플레전트빌의 장로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현재는 플레인스 앤 픽스 노회로 알려져 있는 볼더 노회에서 일하게 되었고, 유타 노회 총무로 7년, 그리고 1994년 세인트 제임스 교회의 예배당을 파손한 노스리지 지진 이후 캘리포니아 타르자나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장로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했다. 그는 계속해서 히다벌그의 알래스카 마을에 있는 회중을 이끌었고, 그와 캐롤은 그가 섬기고 싶어했던 작은 교회에서 사역했다. 캐롤은 알래스카에서 중병에 걸렸다.

"우리는 의사들을 만나기 위해 시애틀로 세 차례 여행을 갔고, 연금국이 관리하는 분담 보조금은 우리 비용의 100%를 차지했습니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우리의 비행기, 호텔, 식사, 렌터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의사들은 캐롤이 검은 곰팡이에 노출되어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 기쁨의 헌금(Christmas Joy Offering)에 의해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연금국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현재 그들은 은퇴 목회자, 교회 종사자, 선교사들의 은퇴 공동체인 파사디나의 몬테비스타 그로브 홈에 살고 있다.

"캐롤은 현재 숙련된 간호사가 돌보는 곳에 살고 있고, 나는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방은 나와 30피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트레이시 목사는 설명한다. "내가유타 노회 총무로서 일하면서 회원 한 명이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분담 보조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몇 년 후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랑 이야기이다.*켄과 캐롤의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나란히 섬겨온 사명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사랑과 우리가 선물을 통해 함께 보여주는 사랑에 대해서도 말이다. 성탄절 기쁨의 헌금의 절반은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내지고, 현재와 과거의 교회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심각한 재정적 필요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준다. 나머지 절반은 장로교 관련 학교와 대학에서 유색인종 공동체를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과 리더십 개발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된다.

관대하게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보태면—많은 것이 모입니다.

***기도합시다 ~***

"하나님, 우리의 열정적인 리더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정적 사랑의 반향을 봅니다. 그들이라는 선물에 감사드리며, 교회 지도자들, 과거, 현재, 미래를 지원하는 우리의 선물을 받으소서. 아멘."